

대웅제약, 헵토젠과 항생제 대체치료 공동개발

대웅제약은 8월17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항체 전문 벤처기업 헵토젠과 인간항체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공동연구를 위해 향후 9년간 정부와 대웅제약이 각각 90억원씩 총 18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간항체를 이용해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할 감염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2007년 11월까지 치료용 항체 후보물질을 도출한 뒤 2010년 11월까지 전임상시험을 거쳐 2013년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감염성 질환 치료용 항체 신약을 임상2상 후 다국적 제약기업에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며, 50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18>